

더듬다 동사

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만져 보거나 헤매다.

-서랍 속을 더듬다.

-손을 더듬다.

-앞을 더듬다.

-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휴대폰이 만져졌다.

-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찾으시려고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셨다.

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짐작하여 찾다.

-길을 더듬다.

-발자취를 더듬다.

-흔적을 더듬다.

-나는 입양된 이후 친부모의 흔적을 더듬는 일에 몰두했다.

-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더듬어 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자료이다.

-김 형사는 미궁에 빠진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차근차근 더듬어 보기로 했다.

뚜렷하지 않은 기억이나 생각을 짐작하여 되살리다.

-기억을 더듬다.

-생각을 더듬다.

-추억을 더듬다.

-결혼을 앞두고 그녀와의 추억을 더듬어 보니 행복했던 순간이 많이 떠올랐다.

-어렸을 적 부모님의 가르침을 더듬어 보면 두 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다.

-지수는 지금 자기에겐 인사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내기 위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.

말하거나 글을 읽을 때 매끄럽지 못하고 자주 막히다.

-말을 더듬다.

-수줍음이 많은 지수는 여러 사람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.

-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말을 더듬는 그 개그맨의 말투는 큰 인기를 끌었다.

-지수는 친구들 앞에서는 쾌활하면서도 정작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까지 더듬을 정도로 순진하다.

불리다1 동사

오라고 하거나 주의를 끄는 말이나 명령, 지시 등을 받다.

- 불리어 가다.
- 불리어 나오다.
- 안으로 불리다.
- 학교로 불리다.
- 부모님에게 불리다.
- 선생님에게 불리다.
- 선생님께 교무실로 불려 갔던 승규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.
- 민준이에게 불려 나온 우리는 민준이의 일을 도와주어야 했다.
- 가: 이 대리 조금 전까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?
- 나: 방금 과장님께 불려 갔어요.

곡조에 따라 노래되다.

- 가곡이 불리다.
- 노래가 불리다.
- 유행가가 불리다.
- 응원가가 불리다.
- 판소리가 불리다.
- 많이 불리다.
- 이 작품은 많은 성악가들에게 불린 곡이다.
- 사람들에게 가곡이 많이 불리던 때가 있었다.
-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이 노래가 제일 잘 불린다.

이름이나 명단이 소리 내어 읽혀 확인되다.

- 불리는 수강생 명단.
- 명단이 불리다.
- 이름이 불리다.
- 하나하나 불리다.
- 큰 소리로 불리다.
- 시상식이 시작되고 수상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.
- 지금부터 이름이 불리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.
-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애타게 기다리며 자신의 이름이 언제 불리는지만 보고 있었다.

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해지거나 이름이 붙여지다.

- 불리는 명칭.
- 별명으로 불리다.
- 별칭으로 불리다.
- 천재라고 불리다.
- 이 젊은 장군은 부하들에게 꼬마 하사라는 애칭으로 불렸다.
- 돌아가신 수녀님은 우리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리던 분이셨다.
- 그는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오뎅이라고 불린다.

읊다 동사

시나 노래 등을 억양을 넣어 읽거나 외다.

-노래를 읊다.

-대사를 읊다.

-시를 읊다.

-풍월을 읊다.

-김 선생님은 시 한 수를 나직이 읊으셨다.

-그 가수는 자신의 심정을 읊은 노래를 발표했다.

-가: 오늘이 첫 무대라 너무 떨려서 대사를 잊어버릴 것 같아.

-나: 그럼 내 앞에 서서 대사 한번 읊어 봐.

시를 짓다.

-아름다움을 읊은 시.

-자연을 읊은 시조.

-사랑을 읊다.

-애절한 마음을 읊다.

-한을 읊다.

-그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었다.

-예리는 가족의 사랑을 읊은 시로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.

-가: 이름 석 자로 삼행시를 지어 보세요.

-나: 네. 지금부터 읊을 테니 운을 떼어 주세요.

능통하다 형용사

어떤 분야에 대하여 아주 뛰어나다.

-기술에 능통하다.

-외국어에 능통하다.

-일에 능통하다.

-지리에 능통하다.

-한국어에 능통하다.

-여행을 좋아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언니는 관광 가이드가 되려고 한다.

-승규는 천문에 능통해서 별과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곤 한다.

-가: 지수가 영어에 능통하다며?

-나: 응, 그런데 영어뿐만 아니라 독어도 잘해.

능숙하다 형용사

어떤 일에 뛰어나고 익숙하다.

-능숙한 손놀림.

-능숙한 솜씨.

-능숙한 수완.

-능숙한 한국어.

-외국어에 능숙하다.

-바느질에 능숙하신 어머니는 우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주신다.

-신입 사원은 이해도 빠르고 성실해 웬만한 일은 제법 능숙하게 처리한다.

-가: 지수가 피아노에 꽤 능숙하더라.

-나: 응,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대.

-가: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배워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?

-나: 넌 영어에 능숙하니까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야.

조사2 명사

명사, 대명사, 수사, 부사, 어미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.

-목적격 조사.

-서술격 조사.

-주격 조사.

-조사와 어미.

-조사가 붙다.

-조사가 생략되다.

-조사 '을'은 명사에 붙어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한다.

-한국어는 교착어로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.

-가: 국어의 조사는 어떤 말과 결합하나요?

-나: 주로 체언이나 부사 등 자립성을 가진 말 뒤에 붙습니다.

말씀씨 명사

말하는 말씀씨.

-재미난 말씀씨.

-말씀씨가 뛰어나다.

-말씀씨가 없다.

-말씀씨가 있다.

-말씀씨가 좋다.

-말씀씨를 과시하다.

-그 후보는 뛰어난 말씀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.

-나는 말씀씨가 좋은 승규를 행사의 진행자로 추천하였다.

-가: 민준이는 말씀씨가 있어서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해.

-나: 맞아.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.

자네 대명사

(높이는 말로) 듣는 사람이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,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.

-자네가 나를 불렀는가?

-학생, 자네는 이름이 뭐지?

-김 군, 나는 자네만 믿겠네.

-가: 자네 나이가 올해 몇인가?

-나: 올해로 서른입니다, 어르신.

-가: 자네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겠나?

-나: 그럼요, 아버지님. 저는 유민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.

말문 명사

말을 하기 위해 여는 입.

-열린 말문.

-말문이 닫히다.

-말문이 터지다.

-말문을 떴다.

-말문을 열다.

-잔뜩 혼이 난 아이는 주눅이 들어 말문이 닫혔다.

-한참을 조용히 있던 남자가 말문을 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.

-가: 유민 씨는 말이 별로 없더라.

-나: 처음에는 그렇지만 친해지면 곧 말문이 터질 거야.

말을 꺼내는 처음.

-말문이 시작되다.

-말문이 트이다.

-말문을 꺼내다.

-말문을 생각하다.

-말문을 트다.

-유민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문을 터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.

-김 교수는 오해 없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말문을 어떻게 할지 한참 고민했다.

-가: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떤 말이든 좋으니 말문을 꺼내 봐.

-나: 모두 제 잘못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.

어투 명사

말에 드러나는 기분이나 말을 하는 버릇.

-다정한 어투.

-무관심한 어투.

-비웃는 어투.

-사무적인 어투.

-화난 어투.

-어투가 느껴지다.

-어투가 달라지다.

-이제 화가 다 풀렸다고 말은 하지만 화난 어투로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화가 많이 났나 보다.

-김 부장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비웃는 어투가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.

-가: 너 어제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? 서로 엄청 다정한 어투로 이야기하던데?

-나: 아, 우리는 사귀는 사이야.

관형사 명사

체언 앞에 쓰여 그 체언의 내용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.

-부사와 달리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온다.

-체언 앞에는 여러 개의 관형사가 나타나기도 한다.

-한국어에서 관형사의 수는 다른 품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.

비속어 명사

고상하지 않고 품위가 없는 천한 말.

-비속어 논란.

-비속어가 난무하다.

-비속어를 남발하다.

-비속어를 사용하다.

-비속어를 쓰다.

-비속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.

-대화 중에 비속어와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.

-가: 생각 없이 쓰던 비속어의 의미를 알고 깜짝 놀랐어.

-나: 응, 나쁜 뜻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쓰지 않도록 해야겠어.

손짓 명사

손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는 동작.

-손짓을 보내다.

-손짓으로 가리키다.

-손짓으로 명령하다.

-손짓으로 부르다.

-손짓으로 제지하다.

-나는 길을 묻는 친구에게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 주었다.

-지수는 손짓으로 내 가방을 가리켰다.

-가: 저쪽에서 우리한테 손짓하는 사람이 누구지?

-나: 지수 같아.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것 같아.

말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감정이나 상황을 손으로 표현함.

-다급한 손짓.

-단호한 손짓.

-손짓 몸짓.

-손짓 발짓.

-손짓으로 연기하다.

-나는 외국인에게 손짓 발짓까지 다 써서 내 상황을 설명했다.

-민준의 급한 손짓을 보니 지금 그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 것 같았다.

-가: 나는 너무 당황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손짓만 하게 되더라.

-나: 나도 그럴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왕좌왕해.

오류 명사

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나 지식.

-논리적인 오류.

-오류를 날다.

-오류를 범하다.

-오류를 인정하다.

-오류를 저지르다.

-오류를 지적하다.

-오류에 빠지다.

-유민이는 자신의 주장이 오류가 아니라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.

-민준이는 유전적인 요소만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의견은 오류라고 주장했다.

-가: 네 주장의 근거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.

-나: 듣고 보니 그렇네. 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.

잘못이나 실수.

-오류가 따르다.

-오류를 고치다.

-오류를 극복하다.

-오류를 범하다.

-오류를 인정하다.

-오류를 저지르다.

-김 과장은 처음 해 보는 일에는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신입 직원들을 격려했다.

-승규는 후배가 저질러 놓은 서류상의 오류들을 수정하느라 늦게까지 회사를 나가지 못했다.

-가: 이걸 제가 주문한 요리가 아닌데요?

-나: 죄송합니다, 손님.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.

컴퓨터의 잘못된 처리로 생기는 오차.

-오류가 나다.

-오류가 나타나다.

-오류가 발견되다.

-오류가 발생하다.

-오류가 생기다.

-오류가 일어나다.

-지수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 전산 처리에 오류가 생겼다.

-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회사는 능숙한 컴퓨터 전문가를 섭외했다.

-가: 이 컴퓨터 수식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어요. 수정해 주세요.

-나: 네, 알겠습니다.

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프로그램의 잘못.

-오류가 나다.

-오류가 나타나다.

-오류가 발생하다.

-오류가 생기다.

-오류가 일어나다.

-오류를 수정하다.

-오류를 확인하다.

-지수가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도 오류가 났는지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.

-문화 센터 회원 모집 첫날 동시에 많은 접속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오류가 발생했다.

-가: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고 파란 화면이 뜨는데 왜 이러지?

-나: 아마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, 내가 한번 봐 줄게.

맥락 명사

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흐름.

-같은 맥락.

-맥락이 끊기다.

-맥락이 없다.

-맥락이 연결되다.

-맥락이 이어지다.

-맥락이 통하다.

-맥락을 파악하다.

-토론에 뒤늦게 참여한 승규는 맥락을 따라가지 못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.

-경찰은 일전에 일어난 강도 사건과 이번 강도 사건의 범행 수법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두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.

-가: 이 문단하고 다음 문단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구나.

-나: 그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내용을 수정할게요.

대담2 명사

정해진 주제에 대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. 또는 그 말.

-정상 대담.

-특별 대담.

-대담 프로그램.

-대담이 이루어지다.

-대담을 나누다.

-대담을 마련하다.

-대담을 벌이다.

-대담을 하다.

-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

-한 영화배우와 감독의 대담을 보고 영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.

-신입 아나운서는 워낙 큰 인물과 대담을 하게 되어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.

-가: 회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대?

-나: 아니. 임원들이 어제 장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누었는데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대.

설득력 명사

잘 설명하거나 타일러서 상대방이 그 말을 따르거나 이해하게 하는 힘.

-설득력이 부족하다.

-설득력이 약하다.

-설득력이 없다.

-설득력이 있다.

-설득력을 가지다.

-설득력을 얻다.

-설득력을 지니다.

-그는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.

-이번 사건이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.

-가: 제가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요?

-나: 사람들이 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지.

부사 명사

주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말.

-관계 부사.

-문장 부사.

-성분 부사.

-부사가 동사를 꾸미다.

-부사를 사용하다.

-부사는 주로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하지만, 관형사에 비해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다.

-부사의 가장 주된 역할은 어떤 단어나 문장을 수식해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하는 것이다.

-‘매우’는 용언 중 형용사 앞에만 쓸 수 있는 부사로서 ‘매우 가다’처럼 동사와는 같이 쓸 수 없다.

존댓말 명사

사람이나 사물을 높여 이르는 말.

-깎듯한 존댓말.

-존댓말을 쓰다.

-반말과 존댓말.

-존댓말을 하다.

-존댓말로 말하다.

-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.

-공식적인 자리에는 서로 친분이 있어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다.

-가: 할아버지, 밥 드세요.

-나: 민준아, 할아버지께는 ‘밥 드세요’가 아니라 ‘진지 잡수세요’라고 존댓말을 써야 돼.

일컫다 동사

이름을 지어 부르다.

-예로부터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었다.

-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일컬었다.

-가: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요?

-나: 네.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 일컫습니다.

가리켜 말하다.

-당숙이란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.

-현악기는 첼로나 바이올린처럼 줄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일컫는다.

-가: 선생님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.

-나: 사람들이 나를 애국자라고 일컫지만 나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.

높이거나 칭찬하여 말하다.

-선행을 일컫다.

-업적을 일컫다.

-재주를 일컫다.

-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승규의 총명함을 일컬었다.

-육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세종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일컫고 있다.

-가: 아들이 효심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좋으시겠어요.

-나: 사람들이 아들의 효심을 일컬으니 당연히 좋지요.

동사2 명사

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.

-한국어에서 ‘젊다’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이고, ‘늙다’는 동사이다.

-영어는 시제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다른 것이 많아서 그 형태들을 모두 외워야 한다.

명칭 명사

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.

-공식 명칭.

-어려운 명칭.

-명칭 변경.

-명칭을 공모하다.

-명칭을 바꾸다.

-명칭을 붙이다.

-오늘은 한옥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명칭을 배웠다.

-우리는 새로운 제품의 명칭을 공모하여 정하기로 했다.

-농경 지역에서는 때에 따라 보리에 붙이는 명칭이 각각 다르다.

소통 명사

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함.

-교통 소통.

-차량 소통.

-공기의 소통.

-소통 장애.

-소통이 원활하다.

-소통이 좋다.

-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도 차량 소통이 원활합니다.

-나무 한 그루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어 차량의 소통을 막았다.

-가: 서울을 향하는 도로 상황은 어때요?

-나: 고속 도로보다는 국도의 차량 소통이 좋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오해가 없도록 뜻이나 생각이 서로 잘 통함.

-의견 소통.

-원활한 소통.

-소통 능력.

-소통 방법.

-소통이 되다.

-소통이 막히다.

-소통을 하다.

-나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리고 소통이 가능하다.

-우리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.

-가: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로 소통을 잘하세요?

-나: 잘하긴.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서로 이해를 못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.

명사2 명사

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.

-고유 명사.

-복합 명사.

-의존 명사.

-자립 명사.

-명사에 붙다.

-그는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명사들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.

-사랑, 정, 아픔과 같은 명사들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.

-가: 선생님, 접두사가 뭐예요?

-나: 그건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것이란다.

자유자재 명사

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.

-자유자재로 구사하다.

-자유자재로 다루다.

-자유자재로 바꾸다.

-자유자재로 연주하다.

-자유자재로 이동하다.

-자유자재로 하다.

-부상에서 회복된 선수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.

-프랑스에서 십 년 동안 살다 온 지수는 불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.

-가: 민준이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?

-나: 저는 어떤 목소리도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특기를 살려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.

어간 명사

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.

-어간과 어미.

-어간을 밝히다.

-어간을 찾다.

-어간에 붙다.

-학생들은 동사의 활용 목록을 보고 어간과 어미를 분석했다.

-'입다'는 '입고', '입으니', '입어서'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어간은 '입-'이다.

관용어 명사

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자주 쓰이면서 특별한 의미로 굳어진 말.

-어려운 관용어.

-관용어 표현.

-관용어의 의미.

-관용어를 공부하다.

-관용어를 외우다.

-관용어를 이해하다.

-'비행기 태운다'는 말은 남을 지나치게 칭찬한다는 의미의 관용어이다.

-외국어의 관용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.

-가: 선생님, '발이 넓다'라는 말은 발이 크다는 뜻이에요?

-나: 관용어로 쓸 때는 인맥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.

당부 명사

꼭 해 줄 것을 말로 단단히 부탁함. 또는 그런 부탁.

-마지막 당부.

-특별한 당부.

-당부의 말씀.

-당부를 덧붙이다.

-당부를 듣다.

-당부를 잊지 않다.

-당부를 전하다.

-엄마는 어린 딸에게 길에 다닐 때는 항상 차를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.

-김 부장은 내게 업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 달라는 사장님의 당부를 전했다.

-가: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.

-나: 물론이지요. 수사하는 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.

원어민 명사

해당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.

-원어민 교사.

-원어민 발음.

-원어민을 따라하다.

-원어민을 데려오다.

-원어민과 대화하다.

-원어민과 만나다.

-원어민에게 배우다.

-민준이는 요즘 중국에서 유학을 온 원어민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.

-나는 일본어를 오래 배웠어도 원어민과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.

-가: 너 정말 영어 발음이 좋다.

-나: 영화에 나오는 원어민 발음을 따라하면서 공부했거든.

발표자 명사

어떤 사실이나 의견,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는 사람.

-강연 발표자.

-주제 발표자.

-발표자와 토론자.

-발표자를 모집하다.

-발표자를 섭외하다.

-발표자를 소개하다.

-발표자를 정하다.

-발표자로 나서다.

-김 교수는 국제 학술회의의 발표자로 선정되었다.

-사회자는 오늘 워크숍의 발표자와 발표 순서를 소개하였다.

-발표자는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하였다.

-발표자는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 주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.

-가: 학술회 준비는 잘되어 가요?

-나: 네. 발표자들에게 발표 원고만 받으면 됩니다.

어조 명사

말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나 생각.

-간곡한 어조.

-걱정스러운 어조.

-공손한 어조.

-명쾌한 어조.

-못마땅한 어조.

-단호한 어조.

-담담한 어조.

-당당한 어조.

-부드러운 어조.

-비꼬는 어조.

-비웃는 어조.

-비통한 어조.

-상냥한 어조.

-시큰둥한 어조.

-우울한 어조.

-침착한 어조.

-통명스러운 어조.

-화난 어조.

-흥분된 어조.

-친구가 너무나 간곡한 어조로 부탁을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.

-승진 심사에서 떨어진 박 대리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.

-가: 당신은 부탁할 때 좀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면 안 돼요?

-나: 알겠어요. 노력해 볼게요.

말소리의 높낮이.

-강한 어조.

-거친 어조.

-낮은 어조.

-느린 어조.

-단순한 어조.

-특이한 어조.

-외국인 친구의 말에서 중국어의 강한 어조가 느껴졌다.

-나는 사투리가 섞인 사내의 어조로 그가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짐작해 보았다.

-가: 저 사람은 말하는 톤을 보니 일본에서 온 것 같아.

-나: 어조만 듣고도 정확히 알아맞혔네.

외래어 명사

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.

-외래어의 사용.

-외래어가 들어오다.

-외래어가 많다.

-외래어를 순화하다.

-외래어를 쓰다.

-현재 쓰이는 외래어 중에는 버스나 컴퓨터처럼 영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많다.

-나라마다 외래어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순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.

-가: 너는 왜 그렇게 불필요한 외래어를 많이 쓰니?

-나: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왔어.

호칭 명사

이름을 지어 부름. 또는 그 이름.

-적절한 호칭.

-호칭이 되다.

-호칭을 바꾸다.

-호칭을 쓰다.

-호칭을 하다.

-호칭으로 부르다.

-청년 봉사자에게는 적절한 호칭이 없어 다들 '선생님'이라고 불렀다.

-지수는 학위를 받고 나서는 '박사'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.

-가: 저와 동기여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어떤 호칭으로 부르면 될까요?

-나: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세요.

모음 명사

사람이 목청을 울려 내는 소리로,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.

-양성 모음.

-음성 모음.

-한글은 모음 열 개, 자음 열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.

-글자 '가'는 자음 'ㄱ'과 모음 'ㅏ'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.

-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승규는 먼저 자음과 모음부터 익히고 있다.

서론 명사

말이나 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첫머리가 되는 부분.

-서론 부분.

-서론의 내용.

-서론이 짧다.

-서론을 쓰다.

-서론을 작성하다.

-본 논문의 목적은 서론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.

-나는 서론에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.

-가: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?

-나: 그럼요. 지금까지는 겨우 서론에 불과합니다.

띄어쓰기 명사

글을 쓸 때, 각 낱말마다 띄어서 쓰는 일. 또는 그것에 관한 규칙.

-띄어쓰기 규칙.

-띄어쓰기가 어렵다.

-띄어쓰기를 틀리다.

-띄어쓰기를 확인하다.

-지수의 독후감은 내용은 좋은데 띄어쓰기가 엉망이다.

-나는 편지를 쓴 후 띄어쓰기, 맞춤법 등을 여러 번 확인했다.

-그의 보고서는 내용은 물론이요,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도 흠잡을 데 없이 정확했다.

-가: 제 보고서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?

-나: 음, 다 좋은데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어요. 여기는 붙여 써야 맞아요.

방언 명사

어떤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들만 쓰는 독특한 언어.

-강원도 방언.

-경기도 방언.

-경상도 방언.

-계층 방언.

-전라도 방언.

-제주도 방언.

-지역 방언.

-충청도 방언.

-사회 방언.

-방언을 구사하다.

-방언을 쓰다.

-방언을 이해하다.

-방언을 조사하다.

-어떤 지역의 방언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 너무 달라서 마치 외국어 같이 느껴진다.

-민준이는 평소에 표준어를 쓰다가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고향의 방언으로 대화한다.

-가: 나는 표준어를 쓰는데 남들이 내가 지방에서 온 걸 어떻게 알지?

-나: 꼭 방언을 쓰지 않아도 억양에서 표가 나거든.

되묻다 동사

못 듣거나 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하다.

-계속해서 되묻다.

-몇 번이고 되묻다.

-선생님에게 되묻다.

-친구에게 되묻다.

-주위가 시끄러운지 그는 내 전화번호를 몇 번이고 내게 되물었다.

-나는 아까 뭐라고 했냐고 계속해서 되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.

-딱 데 정신이 팔렸던 지수는 승규가 언제 집에 갔느냐고 내게 되물었다.

-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이 정말 시험에 합격했는지 선생님께 되물었다.

-가: 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몇 번이나 되묻는 이유가 뭐야?

-나: 부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.

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물어본 사람에게 다시 묻다.

-계속해서 되묻다.

-도리어 되묻다.

-짚궁게 되묻다.

-유민에게 그의 안부를 묻자 도리어 그녀는 내게 그의 안부를 되묻는 것이었다.

-그가 지수에게 시험 범위를 물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왜 그런 걸 가르쳐 줘야 하냐고 알뜰하게 되물었다.

-승규가 언제쯤이면 일이 끝나겠냐고 물어서 나는 그에게 일을 끝내면 수고비라도 좀 줄 건지 짚궁게 되물었다.

-가: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?

-나: 아니요. 용의자가 심문하는 경찰에게 언제 풀어줄거냐고 되묻기만 하고 있어요.

본론 명사

말이나 글에서 주장이 들어 있는 중심 부분.

-본론이 시작되다.

-본론이 전개되다.

-본론에 이르다.

-본론으로 들어가다.

-연설자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골랐다.

-본론에 이르러 비로소 저자의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.

-우리는 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.

-가: 언제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할 거야?

-나: 좋아.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.

문구1 명사

특정한 뜻을 나타내는, 몇 낱말로 된 말.

-광고 문구.

-선전 문구.

-유명한 문구.

-좋은 문구.

-문구가 뛰어나다.

-문구를 넣다.

-문구를 따다.

-글을 쓸 때 적절한 문구를 인용해서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.

-나는 어릴 적부터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견하면 노트에 적어 놓고는 했다.

동문서답 명사

묻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답.

-엉뚱한 동문서답.

-동문서답을 하다.

-승규는 선생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했다.

-국회 의원인 김 씨는 그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대답을 피했다.

-가: 저는 버스 타고 왔어요.

-나: 저녁 먹었냐니까 웬 동문서답이니?

대꾸 명사

남의 말을 듣고 반응하여 하는 말. 짧은 대답.

-대꾸가 없다.

-대꾸가 필요 없다.

-대꾸를 피하다.

-대꾸를 하다.

-나는 그의 거짓말에 어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.

-조금도 예상 못한 아들의 대꾸에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다.

-남편은 아내의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앉아 있었다.

-가: 유민이는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.

-나: 맞아. 유민이는 친구들의 짓궂은 농담에도 재치 있게 대꾸를 해.

수필 명사

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등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.

-수필 한 편.

-수필 문학.

-수필 작가.

-수필을 기고하다.

-수필을 쓰다.

-수필을 읽다.

-유민이는 '무소유'라는 수필을 읽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.

-수필을 쓸 때는 본인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그 작가의 수필은 아름다운 문체와 세련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.

주어 명사

문장의 주요 성분의 하나로, 주로 문장의 앞에 나와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.

-주어가 나타나다.

-주어를 꾸미다.

-주어를 빠뜨리다.

-주어를 생략하다.

-주어를 찾다.

-주어와 결합하다.

-'나는 달린다.'에서 주어는 '나는'이다.

-한국어는 문맥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흔하다.

-'먹다'와 같은 동사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 성분을 필요로 한다.

-학생들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가 많은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했다.

-가: 갔어.

-나: 누가? 주어를 빠뜨리고 말하니까 못 알아들겠어.

감탄사 명사

느낌이나 부름,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의 품사.

- 감탄사의 기능.
- 감탄사의 종류.
- 감탄사가 나오다.
- 감탄사가 터지다.
- 감탄사를 내뿜다.
- 감탄사를 연발하다.
- 지수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보고 놀라 '어머!'하고 감탄사를 내뿜었다.
- 지리산을 등반하는 내내 우리들은 산의 아름다움에 취해 감탄사를 연발했다.
- 가: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멋있었지?
- 나: 응,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지더라.

격언 명사

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.

- 오늘의 격언.
- 격언 한마디.
- 격언 모음.
- 격언의 의미.
- 격언을 인용하다.
- 격언에 따르다.
- 시간의 귀중함을 강조하는 격언 중에 '시간은 금이다'라는 말이 있다.
- 선생님은 '책은 마음의 양식'이라는 격언을 인용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- 가: 지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루고 싶은데 좋은 핑계가 있을까요?
- 나: 격언에 '정직은 최선의 방책'이라는 말이 있듯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.

얼버무리다 동사

말이나 태도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다.

-대답을 얼버무리다.

-말을 얼버무리다.

-말꼬리를 얼버무리다.

-대충 얼버무리다.

-얼렁뚱땅 얼버무리다.

-적당히 얼버무리다.

-지수는 계속 말을 얼버무리는 동생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지 캐물었다.

-나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리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.

-가: 사람들은 내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자꾸 부탁을 해 오는 것 같아.

-나: 웃으면서 얼버무리는 네 태도부터 고칠 필요가 있어.

여러 가지를 한데에 대충 뒤섞다.

-얼버무린 맛.

-양념을 얼버무리다.

-재료를 얼버무리다.

-밥에 얼버무리다.

-적당히 얼버무리다.

-나는 고기에 양념을 얼버무려서 구워 먹었다.

-지수는 신선한 채소에 소스를 대충 얼버무려 샐러드를 만들었다.

-가: 엄마, 재료를 다 한군데 담고 나서 어떻게 해요?

-나: 어느 정도 얼버무린 다음에 볶으렴.

행1 명사

글을 가로나 세로로 늘어놓은 것.

-다음 행.

-행이 비뚤어지다.

-행을 맞추다.

-행을 바꾸다.

-행을 바로잡다.

-줄이 없는 공백에 글씨를 쓰니까 행이 점점 비뚤어진다.

-문단을 나누어 글을 쓸 때에는 행을 바꾸고 한 칸을 들여 쓴다.

-가: 선생님, 이 시를 끝까지 읽을까요?

-나: 아니요. 다음 행까지만 읽으세요.

가로나 세로로 늘어놓은 글을 세는 단위.

-두 번째 행.

-첫 행.

-칠 행.

-한 행.

-이 시는 일 연 삼 행으로 길이가 아주 짧은 시이다.

-선생님께서는 교과서 구 쪽 십오 행에 밑줄을 그으라고 하셨다.

-가: 이 책은 네가 읽기에 좀 어려웠지?

-나: 응. 첫 행 첫 문장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고.

의성어 명사

사람이나 동물, 사물 등의 소리를 흉내 낸 말.

-의성어를 사용하다.

-의성어를 쓰다.

-의성어를 조사하다.

-의성어로 표현하다.

-한국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의성어로 "꼬끼오"라고 쓴다.

-시인은 의성어로 문장을 표현해서 읽는 사람에게 더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.

-가: 외국어를 배울 때 의성어가 어려워요.

-나: 맞아요. 나라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.

서술어 명사

문장에서 주어의 성질, 상태,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말.

-서술어의 생략.

-서술어의 여부.

-서술어의 호응.

-서술어가 사용되다.

-서술어를 쓰다.

-한국어는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이다.

-한국어는 서술어가 주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와의 호응을 잘 맞추어야 한다.

-가: 이 문장에 들어갈 서술어의 알맞은 형태는 무엇일까요?

-나: 음, 글썄요.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.

완곡하다 형용사

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투가 부드럽다.

-완곡한 말.

-완곡한 표현.

-완곡하게 거절하다.

-완곡하게 권유하다.

-완곡하게 대답하다.

-그는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 완곡한 말로 취재를 거부했다.

-나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거절할 때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편이다.

-가: 솔직히 그 옷은 지수한테 안 어울렸는데 자꾸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.

-나: 다른 옷이 더 예쁜 것 같다고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지 그랬어.

낱말 명사

의미와 소리, 기능을 가져 홀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.

-비슷한 낱말.

-어려운 낱말.

-낱말의 뜻.

-낱말의 쓰임.

-낱말의 의미.

-낱말을 찾다.

-나는 낱말의 뜻을 모를 때 사전을 찾는다.

-선생님은 낱말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.

-가: 이 문제는 왜 틀렸니?

-나: 이 낱말의 의미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.

대명사 명사

다른 명사를 대신하여 사람, 장소, 사물 등을 가리키는 낱말.

-남성 대명사.

-부정 대명사.

-소유 대명사.

-여성 대명사.

-'나'는 말하는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.

-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에는 이것, 저것, 그것 등이 있습니다.

(비유적으로) 어떤 종류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.

-김치는 한국 음식의 대명사처럼 되었다.

-황금은 부유함을 나타내는 대명사처럼 쓰인다.

-우리 제품이 업계의 대명사가 되도록 열심히 일합시다.

-가: 와, 오늘 발레 공연은 정말 재미있었어.

-나: 맞아. 특히 주인공이 정말 멋졌어. 우아함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해.

욕설 명사

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상스러운 말.

-거침없는 욕설.

-험한 욕설.

-욕설을 늘어놓다.

-욕설을 뱉다.

-욕설을 일삼다.

-욕설을 퍼붓다.

-욕설을 하다.

-욕설을 해 대다.

-가격 흥정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인과 손님은 서로 욕설을 해 가며 싸웠다.

-술에 취해 버스에 탄 승객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버스 안에서 갱판을 부렸다.

-가: 저 선수는 왜 퇴장을 당했어?

-나: 경기 도중에 상대방 선수에게 욕설을 뱉었거든.

되뇌다 동사

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.

-머릿속으로 되뇌다.

-입으로 되뇌다.

-몇 번이나 되뇌다.

-입버릇처럼 되뇌다.

-수없이 되뇌다.

-자꾸 되뇌다.

-승규는 집에 가서 할 일을 계속 되뇌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.

-나는 그의 말을 되뇌어 생각해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.

-가: 어려서부터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더니 유민이는 결국 유학을 떠나는구나.

-나: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잖아.

자음 명사

목, 입, 혀 등의 발음 기관에 의해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.

-한국어의 자음.

-자음을 배우다.

-자음을 쓰다.

-한국어의 자음을 가르치다 보면 비읍, 쌍비읍, 피읖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다.

-한글에서 기억, 니은, 디귿, 리을 등은 자음이며 이들은 보통 모음과 합쳐져서 발음이 된다.

-가: 너희 받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? 우리는 오늘 그냥 자기소개만 간단히 했는데.

-나: 우리는 자기소개도 하고 자음 중에서 시옷까지 진도가 나갔어. 다들 잘 따라와 주더라고.

의태어 명사

사람이나 동물, 사물 등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.

-엄마는 아이를 무릎에 앉고 책을 읽을 때 의성어, 의태어를 강조해서 읽어 주었다.

-지수는 비가 가늘고 조용히 내리는 모양을 '보슬보슬'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해 표현했다.

-동생은 동시에 '풍당풍당', '방울방울'과 같은 음성적 어감이 강한 의태어를 풍부하게 썼다.

-가: 여러분, 이 시에서 의태어를 찾아서 말해 보세요.

-나: '빙글빙글'이랑 '뭉게뭉게'가 있어요.

된소리 명사

‘ㄱ’, ‘ㄷ’, ‘ㅂ’, ‘ㅅ’, ‘ㅈ’과 같이 목구멍의 근육을 긴장하여 내는 소리.

-된소리 글자.

-된소리 발음.

-된소리가 나다.

-된소리를 내다.

-된소리를 발음하다.

-된소리로 내다.

-‘꿈’, ‘땀’, ‘뺨’, ‘쑥’, ‘쪽’의 첫소리는 모두 된소리이다.

-할머니는 고추의 ‘ㄱ’을 된소리로 내어 ‘꼬추’라고 발음하셨다.

-그는 된소리를 잘 발음하지 못해 항상 쌀을 ‘샬’이라고 읽었다.

-형상갯게 생긴 사내는 된소리가 섞인 거친 욕을 하며 화를 냈다.

논술 명사

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논리에 맞게 말하거나 적음.

-논술 고사.

-논술 문제.

-논술 성적.

-논술 시험.

-논술 위주.

-논술 주제.

-논술 특강.

-논술 형식.

-논술이 되다.

-논술을 준비하다.

-논술을 하다.

-지수는 명쾌한 논리 전개 능력이 있어 논술을 잘 쓴다.

-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모호한 주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네 논술을 검토해라.

-김 교수는 대학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논술 고사의 모범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.

-나는 평소 시사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.

-가: 인권 보호를 주제로 한 논술 과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. 좀 봐 주실래요?

-나: 이 부분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보다 타당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.

-가: 언니, 논술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-나: 평소에 신문 사설을 꼼꼼히 읽고 네 생각을 논리 있게 전개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야.

목적어 명사

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.

-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보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, 서술어가 필수 성분으로서 문장을 구성한다.

-화자와 청자가 목적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대화에서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.

-가: '나는 밥을 먹는다'라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어느 거야?

-나: 먹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니까 '밥을'이 목적어이지.

습득 명사

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듦.

-기술 습득.

-정보 습득.

-지식 습득.

-언어 습득.

-후천적인 습득.

-습득 능력.

-습득이 되다.

-습득을 하다.

-아기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기의 언어 습득도 빨라진다.

-그는 요즘 컴퓨터 사용법 습득을 위해 어린 손자에게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.

-우리 회사는 요즘 신기술 습득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.

-가: 민준 씨 아들은 벌써 말을 할 줄 알아요?

-나: 네, 저희 아들이 언어 습득이 좀 빠른 것 같아요.

부인2 명사

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.

-완강한 부인.

-부인이 불가능하다.

-부인을 하다.

-질문에 대한 그의 강력한 부인에 모두가 놀랐다.

-용의자는 부인이 불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.

-가: 어제 텔레비전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뉴스 봤니?

-나: 응. 그런데 범인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고 있대.

구어 명사

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.

-일상 구어.

-구어 자료.

-구어 표현.

-구어를 구사하다.

-구어로 말하다.

-지수는 영어 구어 표현을 익히고 싶어서 회화 학원에 다니기로 했다.

-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쓰는 구어와 글로 쓰는 문어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인다.

-가: 사람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언어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어요.

-나: 그러면 구어 자료를 구해야겠네요.

음성으로 나타내는 언어.

-구어의 특성.

-구어와 문어.

-구어를 사용하다.

-구어로 표현하다.

-구어로 나타내다.

-언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어 자료가 많지 않다.

-사람들은 발음 기관을 통해 음성으로 표현하는 구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.

-가: 선배, 구어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

-나: 먼저 다양한 구어를 녹음해야 해.

함축 명사

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간직함.

-역사의 함축.

-함축이 되다.

-함축이 있다.

-함축을 가지다.

-함축을 지니다.

-함축을 하다.

-양국의 무역 협정 안에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함축이 있었다.

-이 자선 행사에는 주최하는 회사의 홍보라는 함축을 지니고 있었다.

-가: 이 사진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.

-나: 한 장의 사진에도 역사의 함축이 들어 있어요.

말이나 글이 속에 많은 뜻을 담고 있음.

-주제의 함축.

-함축이 되다.

-함축이 있다.

-함축을 가지다.

-함축을 지니다.

-함축을 하다.

-이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함축이 되어 있다.

-그 만화가 는 정치적인 함축이 있는 내용을 만화로 표현했다.

-가: 주제의 함축이 드러난 부분을 찾았어요?

-나: 네, 마지막 단락인 것 같아요.

논설문 명사

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.

-논설문 개요.

-논설문 예시.

-논설문 자료.

-논설문 작성법.

-논설문 주제.

-논설문 형식.

-논설문을 쓰다.

-논설문을 완성하다.

-논설문을 읽다.

-논설문을 평가하다.

-논설문에 속하다.

-나는 인터넷 예절을 주제로 한 논설문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논거를 펼쳐 최우수상을 받았다.

-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하게 담은 논설문을 써 보는 것은 토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.

-논설문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-가: 다음의 논설문을 잘 읽고, 중심 생각이 드러나게 요약해 보렴.

-나: 이 글의 필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사형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요.

속어 명사

일반 사람들이 널리 쓰는, 품위 없는 말.

-비어와 속어.

-속어를 말하다.

-속어를 사용하다.

-속어를 쓰다.

-방송에서 과도한 욕설과 속어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.

-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속어나 비어를 써서는 안 된다.

-진행자가 종종 속어를 사용해서 방청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.

천하고 교양이 없는 말.

-속어를 사용하다.

-속어를 쓰다.

-화가 난다고 속어를 퍼붓던 남자는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.

-몇몇 학생들이 거친 속어와 욕설을 내뱉어, 듣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.

-가: 무슨 영화 대사가 말끝마다 속어야?

-나: 조직폭력배가 주인공이니깐 그렇지, 뭐.

화자 명사

이야기를 하는 사람.

-남성 화자.

-소설 화자.

-여성 화자.

-시적 화자.

-일본어 화자.

-중국어 화자.

-화자의 목소리.

-시에서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이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.

-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유학생 중에 중국어권 화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.

-가: 언제 존대말을 써야 하는 것이죠?

-나: 보통 화자보다 청자의 나이가 많을 때죠.

평론 명사

사물의 가치, 좋은 점과 나쁜 점,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 등을 평가하여 말함. 또는 그런 글.

-경제 평론.

-문학 평론.

-시사 평론.

-음악 평론.

-정책 평론.

-평론을 쓰다.

-평론을 읽다.

-평론을 하다.

-나는 신문을 볼 때 시사 평론 부분을 항상 읽어 보고 있다.

-성악가이신 이모부는 음악 평론에 관한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.

-가: 문학 잡지에 제가 쓴 시 평론이 실렸어요!

-나: 어머, 축하해요.

대조적1 명사

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는 것.

-대조적인 사고방식.

-대조적인 생각.

-대조적인 성격.

-대조적인 의미.

-대조적인 소비 방식.

-대조적으로 살아가다.

-대조적으로 평가하다.

-선한 주인공과 대조적인 악당 캐릭터는 주인공을 더욱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한다.

-영화에 대한 반응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호평을 하는 사람도 많고 혹평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.

-가: 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. 넌?

-나: 난 너랑 대조적이야. 난 질보다 양이 중요해.

단락 명사

진행되고 있는 일에서 일단 어느 정도 끝을 맺음.

-일의 단락.

-단락을 맺다.

-단락을 짓다.

-단락을 매듭짓다.

-긴 여행은 오늘로 단락을 맺고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.

-한계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 한계를 인정해야 단락을 짓고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.

-가: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네요.

-나: 오늘은 우선 이것으로 단락을 짓고 내일 다시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합시다.

글, 영화, 음악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묶인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.

-한 단락.

-두 단락의 글.

-이 단락의 주제.

-단락을 구분하다.

-단락을 나누다.

-여러 단락으로 나누다.

-송규는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

-단락을 구성할 때는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주제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.

-가: 선생님, 이 단락은 길이가 너무 긴데 나누는 게 어떨까요?

-나: 길이가 길어도 일관된 주제가 있으니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.

귓속말 명사

남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작은 소리로 말함. 또는 그런 말.

-귓속말을 건네다.

-귓속말을 나누다.

-귓속말을 주고받다.

-귓속말로 묻다.

-귓속말로 소곤대다.

-귓속말로 속삭이다.

-귓속말로 알리다.

-귓속말로 이야기하다.

-내 친구는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귓속말을 해도 주변 사람에게 다 들릴 정도이다.

-두 사람은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라도 나누는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깔깔거리며 웃었다.

-가: 맨 뒤에 앉은 학생은 무슨 일로 수업 시간에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는 건가?

-나: 별일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

열거 명사

여러 가지 예나 사실 등을 하나하나 죽 늘어놓음.

-사례의 열거.

-단순한 열거.

-열거 내용.

-열거 목록.

-열거 방식.

-열거가 되다.

-열거를 하다.

-내 동생은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일일이 열거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.

-우리 선생님은 이야기를 열거만 해 놓아서 좋은 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.

-가: 광고지에 우리 상품의 좋은 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.

-나: 알겠습니다. 한번 잘 정리해서 써 보겠습니다.

예문 명사

단어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여 주는 문장.

- 예문 작성.
- 예문을 들다.
- 예문을 만들다.
- 예문을 읽다.
- 예문을 찾다.
- 영어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어를 외울 때 예문을 함께 외우도록 시키셨다.
- 새로 나온 그 사전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예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았다.
- 가: 우리 불어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.
- 나: 그렇지?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.

높임법 명사

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.

- 한국어의 높임법.
- 높임법 체계.
- 높임법이 실현되다.
- 높임법을 사용하다.
- 높임법을 쓰다.
- 높임법에 맞다.
-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에게 높임법을 사용해서 말해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.
-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여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표현하는 언어 형태가 달라진다.
- 가: 선생님, 이 문장은 높임법에 맞는 문장인가요?
- 나: 어디 보자. 주어진 ‘아버지’를 제대로 높였으니 맞는 문장이구나.

모국어 명사

자기 나라의 말. 또는 자기 민족의 말.

-모국어 사랑.

-모국어 습득.

-모국어 화자.

-모국어를 말하다.

-모국어를 배우다.

-유민이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그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다.

-일부 재미 교포 2세대들은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학이면 한국을 찾아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한다.

-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지수는 학교에서는 영어로 말하지만 집에서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대화한다.

-가: 혹시 영어 원어민 화자세요?

-나: 아니요. 영어는 외국어로 배웠고요, 모국어는 한국어예요.

기행문 명사

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쓴 글.

-기행문 형식.

-기행문을 남기다.

-기행문을 읽다.

-기행문을 쓰다.

-기행문을 적다.

-지수는 제주도에 다녀온 후 기행문을 썼다.

-기행문을 읽으니 나도 작가가 여행한 곳들에 가 보고 싶어졌다.

-가: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유럽 건축 기행문을 쓰게 되었나요?

-나: 유럽을 여행할 때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건축물들에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.

선언 명사

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함.

-금연 선언.

-금주 선언.

-독신 선언.

-변신 선언.

-작별 선언.

-채식 선언.

-선언을 하다.

-유명한 배우의 채식 선언은 채식의 인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.

-여자 친구의 이별 선언은 민준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을 만큼 단호했다.

-가: 올해는 내가 꼭 금연에 성공하겠어.

-나: 벌써 금연 선언만 몇 번째니? 올해는 꼭 성공해.

국가나 단체, 개인이 주장이나 방침, 입장 등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림.

-공동 선언.

-대국민 선언.

-독립 선언.

-무효 선언.

-불참 선언.

-시국 선언.

-은퇴 선언.

-탈퇴 선언.

-폐지 선언.

-합의 선언.

-대통령의 선언.

-선언을 발표하다.

-선언을 철회하다.

-선언에 기여하다.

-선언에 참가하다.

-한 단체의 회의 불참 선언은 위원회에 속한 단체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.

-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된 두 나라는 휴전 선언 후 복구 작업에 한창이었다.

-가: 유명한 연예인의 국회 의원 선거 출마 선언 이야기 들었어?

-나: 그래. 나도 깜짝 놀랐어. 어른들도 다 놀란 것 같아.

회의나 행사의 진행을 제한하기 위해 말함. 또는 그런 말.

-개막 선언.

-개최 선언.

-개회 선언.

-폐회 선언.

-휴정 선언.

-선언이 되다.

-선언을 하다.

-폐회 선언을 마지막으로 모든 대회 일정이 마무리되었다.

-개막 선언과 함께 대회의 시작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펼쳐졌다.

-가: 늦어서 죄송합니다. 재판은 어떻게 되었나요?

-나: 한 시간 동안 휴정 선언 상태입니다. 잠시 후에 재판이 다시 시작합니다.

문헌 명사

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.

-문헌 기록.

-문헌 자료.

-문헌이 존재하다.

-문헌을 분석하다.

-문헌을 살펴보다.

-문헌을 조사하다.

-문헌에 수록되다.

-조선 시대의 문헌 자료를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상을 알 수 있다.

-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그 어떤 문헌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아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.

-가: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술을 담그신다고 들었습니다.

-나: 네, 저희는 조선 시대 문헌 속에 나오는 대로 술을 담그고 있어요.

연구의 자료가 되는 책이나 문서.

-참고 문헌.

-문헌을 모으다.

-문헌을 인용하다.

-문헌을 참고하다.

-문헌을 찾다.

-나는 논문을 쓸 때 많은 문헌들을 참고했다.

-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항상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.

-가: 이번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책들과 논문을 참고해서 쓴 거야?

-나: 보고서 제일 뒤에 참고 문헌 목록이 있으니까 그 목록을 봐.

문어2 명사

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글에서 쓰는 말.

-문어 자료.

-문어 표현.

-문어를 사용하다.

-문어에 나타난다.

-글이나 공문서에서 주로 쓰이는 문어는 문법적이고 격식적인 표현이 많다.

-'그'와 '그녀'는 대화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문어에서 쓰이는 단어이다.

-옛날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문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

-문자를 사용하는 문어와 말소리로 전달하는 구어는 그 형식과 쓰임에 차이가 있다.

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언어.

-세상의 모든 언어가 문어는 아니다.

발언 명사

말을 하여 의견을 나타냄. 또는 그 말.

-폭탄 발언.

-대통령의 발언.

-공격적인 발언.

-적절한 발언.

-발언 실수.

-발언을 하다.

-발언에 나서다.

-새 정책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공격적인 발언이 논쟁이 되었다.

-토론장에서 사회자는 참여자들의 인신공격 발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.

-가: 어제 대통령의 독도 관련 담화 들었니?

-나: 응.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적절했던 것 같아.

사무적1 명사

직장에서 주로 서류를 처리하는 일에 관한 것.

- 사무적인 기술.
- 사무적인 능력.
- 사무적인 문제.
- 사무적인 요건.
- 사무적인 일.
- 사무적인 작업.
- 나는 시청에서 사무적인 일을 주로 하는 공무원이다.
- 그 회사는 사무적인 능력을 갖춘 꼼꼼하고 정확한 사원을 모집한다.
- 가: 회사 생활은 어때?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진 않아?
- 나: 사무적인 작업이라 사람 만나는 일은 없어.

행동이나 태도가 진심이 없고 형식적인 것.

- 사무적인 관계.
- 사무적인 말투.
- 사무적인 분위기.
- 사무적인 사람.
- 사무적인 어투.
- 사무적인 자세.
- 사무적인 태도.
- 사무적으로 대하다.
- 사무적으로 말하다.
- 사무적으로 행동하다.
- 사무적인 투로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섭섭함을 느꼈다.
- 말하는 태도로 보아 그는 상당히 딱딱하고 사무적인 사람처럼 보인다.
- 가: 사무적으로 대답하지 마.
- 나: 알았어, 미안해. 기계적으로 말을 하고 말았네.

해독3 명사

어려운 구절이나 글 등을 읽어 뜻을 이해하거나 해석함.

-한문 해독.

-항가 해독.

-해독 작업.

-해독이 쉽다.

-해독이 어렵다.

-해독을 하다.

-그 글은 어려운 한자로 쓰여 있어 해독이 쉽지 않았다.

-여러 학자들이 고분 벽에 쓰인 고대 문자의 해독에 매달렸다.

-가: 지난주에 조선 시대 초기에 쓰인 책이 발견됐대요.

-나: 해독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.

잘 알 수 없는 암호나 기호 등을 읽어서 뜻을 알아냄.

-기호 해독.

-신호 해독.

-암호 해독.

-해독이 되다.

-해독이 불가능하다.

-해독을 하다.

-연구진들은 유전자 정보의 해독에 열중했다.

-그들은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암호를 해독 중이라고 밝혔다.

-김 박사는 마침내 아무도 풀지 못한 우주의 신호 해독에 성공했다.

-가: 승규야,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

-나: 추리 소설에 나온 암호를 해독 중이야. 생각보다 어렵네.

문단1 명사

글에서 여러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단위.

-마지막 문단.

-첫 문단.

-문단의 연결.

-문단을 구성하다.

-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.

-문단을 잘 나누면 서론, 본론, 결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.

-문단은 글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.

-학생들은 각 문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 글의 줄거리를 요약했다.

-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.

언행 명사

말과 행동.

-무책임한 언행.

-뻔뻔한 언행.

-언행의 불일치.

-언행이 거칠다.

-언행이 당당하다.

-언행이 바르다.

-언행이 착실하다.

-언행에 유의하다.

-중요한 거래를 하러 간 김 대리는 언행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.

-나는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고 다니다가 언행이 거칠다는 지적을 받았다.

-가: 지수는 성격은 좋은데 언행이 가끔 지나칠 때가 있어.

-나: 맞아. 말이랑 행동만 좀 조심하면 좋을 텐데.

혼잣말 명사

말을 들어 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하는 말.

-혼잣말을 계속하다.

-혼잣말을 내뱉다.

-혼잣말로 감탄하다.

-혼잣말로 구시렁거리다.

-혼잣말로 불평하다.

-혼잣말로 탄식하다.

-혼잣말로 꾸념하다.

-나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심부름을 나갔다.

-언니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.

-시험이 다가올수록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되뇌었다.

어순 명사

한 문장 안에서 주어, 목적어,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이 나오는 순서.

-어순 관계.

-어순 배열.

-어순이 같다.

-어순이 다르다.

-어순을 바꾸다.

-한국어는 주어, 목적어, 서술어 순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.

-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서문의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면 의문문이 된다.

-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거의 같아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의 언어를 비교적 친숙하게 느낀다.

-가: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?

-나: 우리말과 어순 배열이 달라서 문장 구조를 익히기가 힘이 들었어요.

비유적1 명사

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어떤 것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는 것.

-비유적인 언어.

-비유적인 화법.

-비유적으로 말하다.

-비유적으로 쓰이다.

-비유적으로 표현하다.

-이 글은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였다.

-기사에서는 위기 상황을 "얼음 위를 걷는 듯하다"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.

-가: "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"가 무슨 뜻이야?

-나: 응,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야.

말끝 명사

짧은 말 또는 이야기의 맨 끝.

-확실하게 맺은 말끝.

-말끝이 기어들다.

-말끝을 분명히 하다.

-말끝을 얼버무리다.

-말끝을 잇다.

-말끝을 자르다.

-말끝을 흐리다.

-학생은 자신의 답에 자신이 있는지 말끝이 점점 흐려졌다.

-내게 화가 난 지수는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말끝을 자른 채 가 버렸다.

-승규는 말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말끝에 고향 지방 억양이 튀어나왔다.

-피해자는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지 말끝을 차마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.

-가: 발표 잘했니?

-나: 네, 그런데 준비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세 번 정도 말끝을 맺지 못했어요.

구사 명사

말이나 기교 등을 마음대로 능숙하게 다루어 씀.

-어휘 구사.

-외국어 구사.

-전략 구사.

-구사 능력.

-구사가 되다.

-구사를 하다.

-지수는 다섯 개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교관이다.

-김 사장은 다양한 전략의 구사로 어려움에 빠져 있던 회사를 살려 냈다.

-가: 따님은 또래에 비해서 어휘 구사 능력이 무척 좋습니다.

-나: 아마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게 도움이 된 것 같네요.

동화1 명사

서로 닮게 되어 성질이나 형식 등이 같아짐.

-자음 동화.

-감정의 동화.

-동화 작용.

-동화 정책.

-동화 현상.

-동화가 되다.

-동화가 일어나다.

-동화를 막다.

-동화를 하다.

-교류가 잦은 두 지역의 언어는 동화 현상으로 인해 서로 비슷해진다.

-산속에서 지내면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.

-가: 식민지가 되면 고유의 언어나 문화를 강제로 빼앗기는 일이 많군요.

-나: 응. 그래서 동화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.

문항 명사

문제의 항목.

-객관식 문항.

-일 번 문항.

-주관식 문항.

-총 백 문항.

-이번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 영역에는 총 육십 문항이 출제된다.

-그 시험은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창의성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-가: 내가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설문지 좀 작성해 줄 수 있어?

-나: 그런데 여기 삼 번 문항과 오 번 문항은 설문 조사의 목적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?

문형 명사

문장의 구조, 종류, 기능 등에 의해 나누어진 문장의 유형.

- 기본 문형.
- 복잡한 문형.
- 문형 연습.
- 문형을 이루다.
- 문형을 익히다.
- 문형을 제시하다.
- 가장 기본적인 문형은 '주어-서술어'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.
-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한국어 문형을 연습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.
- 가: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?
- 나: 우선 영어의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 다음에 기본 문형들을 다양하게 응용해 봐.

서신 명사

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내는 글.

- 서신 한 장.
- 서신 한 통.
- 서신 교환.
- 서신 발송.
- 서신 왕래.
- 서신이 오다.
- 서신을 받다.
- 서신을 보내다.
- 서신을 주고받다.
- 이제는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어릴 적 친구에게서 서신 한 통이 도착하였다.
- 작년 여름 서로 한눈에 반한 남녀는 오랫동안 서신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.
- 가: 애야. 이 서신을 할아버지께 전해 드리고 와라.
- 나: 네, 알겠습니다.

빈칸 명사

비어 있는 칸.

-빈칸을 채우다.

-빈칸에 기재하다.

-빈칸에 들어가다.

-빈칸에 적어 넣다.

-퀴즈의 빈칸을 채우면 이벤트에 응모된다.

-그는 신문 뒷면에 있는 낱말 퀴즈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모두 채웠다.

-가: 지문의 빈칸에 들어갈 영어 단어를 넣는 문제 풀었어?

-나: 아니. 앞뒤 문맥을 살펴 봐도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어.

비어 있는 부분.

-빈칸을 채우다.

-빈칸으로 남다.

-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거의 빈칸으로 남아 있다.

-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률을 협상의 빈칸으로 남겨 놓고 있다.

-가: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빠진 부분이 있어.

-나: 빈칸을 채우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겠다.

더듬거리다 동사

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자꾸 만지거나 헤매다.

-더듬거리며 찾다.

-더듬거리며 헤매다.

-골목을 더듬거리다.

-길을 더듬거리다.

-손을 더듬거리다.

-갑자기 정전이 돼서 손을 더듬거리며 초를 찾았다.

-치매에 걸린 그 노인은 집이 어디인지를 못 찾아서 골목을 더듬거리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.

-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 가자 밤이 되면 모든 것을 더듬거리면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.

-가: 왜 이렇게 늦었어?

-나: 중간에 길을 더듬거리며 헤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.

말하거나 글을 읽을 때 자꾸 막히거나 머뭇거리거나 한 말을 또 하거나 하다.

-더듬거리는 버릇.

-더듬거리는 서툰 말솜씨.

-말을 더듬거리다.

-말을 더듬거리는 버릇이 있는 김 씨는 말씨를 바꾸기 위해 웅변 학원에 다니고 있다.

-평소에는 유창한 말솜씨를 뽐내던 지수였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말을 더듬거렸다.

-가: 발표한다더니 잘했어?

-나: 아니, 망쳤어. 긴장해서 말까지 더듬거렸지 뭐야.

자모 명사

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글자.

-한글 자모.

-자모로 이루어지다.

-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한글 자모는 자음 14자와 모음 10자이다.

-영어의 자모는 모두 26개이며 그 중 5개가 모음, 21개가 자음이다.

-한글은 자모의 조합에 의해 총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는 2350자 정도이다.

어학 명사

언어를 연구하는 학문.

-어학 교수.

-어학 분야.

-어학 연구.

-어학 전공자.

-어학을 공부하다.

-나는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다닐 때 어학과 문학 수업을 모두 들었다.

-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서도 어학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했다.

-가: 어학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?

-나: 저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규칙을 발견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낍니다.

외국어를 배우거나 말하고 쓰는 것.

-어학 능력.

-어학 실력.

-어학 실습.

-어학 연수.

-어학을 가르치다.

-어학을 공부하다.

-세계화 시대에는 어학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.

-이번 신입 사원은 어학 실력이 뛰어나서 주로 외국 출장을 다니는 업무를 맡았다.

-가: 이번 방학 때에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?

-나: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

대조적2 관형사

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는.

-대조적 반응.

-대조적 색채.

-대조적 성격.

-대조적 특성.

-대조적 평가.

-인상이 강해 보이는 지수와 순해 보이는 유민이는 대조적 이미지를 가졌다.

-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그 영화에 관객들은 대조적 반응을 보여 결국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다.

-가: 네 동생도 너처럼 감성적이야?

-나: 개는 나랑 대조적 성격이라서 굉장히 이성적이야.

용례 명사

실제로 쓰이는 예.

- 용례가 많다.
- 용례를 갖추다.
- 용례를 만들다.
- 용례를 분석하다.
- 용례를 익히다.
- 용례를 찾다.
- 이 사전은 용례가 많아서 단어의 실제 쓰임을 잘 알 수 있다.
- 단어를 배울 때는 용례를 찾아 그 사용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.
- 가: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도 될까?
- 나: 용례는 많으니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. 우리도 가끔 쓰잖아.

서술 명사

어떤 사실, 사건, 생각 등을 논리나 순서에 따라 말하거나 적음.

- 주관적 서술.
- 서술 기법.
- 서술 방식.
- 서술 체계.
- 서술이 되다.
- 서술이 정확하다.
- 서술을 하다.
- 안 교수는 미술 치료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서술을 했다.
- 나는 연대에 따른 서술 방식으로 대한민국 근대의 역사를 풀어 나갔다.
- 가: 이 책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.
- 나: 내용은 좋은데 서술이 주관적이라 설득력이 약했어요.

횡설수설 명사

앞뒤가 맞지 않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음.

-횡설수설 거리다.

-횡설수설 굴다.

-횡설수설 말을 늘어놓다.

-횡설수설 말하다.

-횡설수설 변명하다.

-횡설수설 지껄이다.

-유민이는 면접관 앞에서 당황해서 횡설수설 말했다.

-그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라며 횡설수설 변명해서 경찰이 그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.

-가: 아니. 저는 속이려고 한건 아니지만...

-나: 횡설수설 지껄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.

본문 명사

문서나 긴 글에서 중심이 되는 글.

-본문 내용.

-본문이 나오다.

-본문이 시작되다.

-본문을 쓰다.

-본문을 읽다.

-나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했다.

-선생님께서 영어 교과서의 본문을 모두 해석해 오라는 숙제를 내 주셨다.

-가: 머리말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오는군요.

-나: 네, 아마 본문을 꼼꼼히 읽어 봐야 할 겁니다.

주석을 붙인 대상이 되는 원래의 글.

-본문과 주석.

-본문이 어렵다.

-본문을 가져오다.

-본문을 공부하다.

-본문을 해석하다.

-본문에 딸리다.

-본문과 비교하다.

-나는 한자로 된 본문이 어려워서 부록으로 실린 주석을 살펴보았다.

-최 교수는 본문과 주석을 꼼꼼히 비교해서 잘못 풀이된 곳을 바로잡았다.

-가: 이 책은 본문이 아니라 내용을 쉽게 풀이한 책이구나.

-나: 본문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.

번역하거나 고치지 않은 원래의 글.

-본문과 번역문.

-영어로 된 본문.

-본문을 번역하다.

-본문을 풀이하다.

-본문을 해석하다.

-영어 교과서의 본문을 읽고 해석해 보세요.

-번역을 할 때는 본문의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-가: 이 번역본의 본문을 볼 수 있을까요?

-나: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

표기 명사

적어서 나타냄. 또는 그런 기록.

-답안 표기.

-이중 표기.

-잘못된 표기.

-표기가 잘못되다.

-표기를 하다.

-내가 보낸 편지는 잘못된 주소 표기로 배송되지 않았다.

-선생님께서서는 답안지 표기는 검은색 펜으로 하라고 하셨다.

-가: 김 대리, 내가 맡긴 일은 다 됐나?

-나: 네, 여기 있습니다. 오류가 있는 항목은 따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.

말을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표시함.

-로마자 표기.

-영문 표기.

-한글 표기.

-표기가 다르다.

-표기를 바로잡다.

-나는 동생이 쓴 글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바로잡아 주었다.

-사전에는 표제어에 대해 음성 표기가 제시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.

-가: 나는 영어 단어 받아쓰기가 너무 어려워.

-나: 영어는 발음이랑 표기가 달라서 그래.

화법 명사

말하는 방법.

-부드러운 화법.

-직설적인 화법.

-화법이 특이하다.

-화법을 바꾸다.

-사장의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.

-영업 사원은 뛰어난 화법으로 고객들이 제품을 사고 싶도록 만들었다.

-가: 선생님은 목소리도 멋있으시고 화법도 세련되신 것 같아.

-나: 맞아, 그래서 가끔은 아나운서 같은 느낌도 들어.

문장이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는 방법.

-화법의 종류에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등이 있다.

-그는 화법 중 직접 화법을 이용해 글에 생동감을 주고자 했다.

머리말 명사

누워 있는 사람의 머리 주위.

-침대 머리말.

-머리말에 앉다.

-머리말에 두다.

-머리말에 두다.

-머리말에서 간호를 하다.

-어머니는 밤새 그녀의 머리말에 앉아 간호를 하였다.

-그는 자명종 시계를 머리말에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다.

-그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 머리말에 둔 물 주전자를 찾았다.

한자어 명사

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.

-기초 한자어.

-한자어 교육.

-한자어 어휘.

-한자어 학습.

-한자어와 고유어.

-한자어와 외래어.

-한자어로 되다.

-한국어에는 한자어로 된 어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.

-한자어를 고유어로 풀어서 쓰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.

-가: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무엇을 어려워하나요?

-나: 네, 어휘의 경우 한자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.

영문2 명사

영어로 쓴 글.

-영문 소개서.

-영문 편지.

-영문을 작성하다.

-영문을 읽다.

-영문을 해석하다.

-영문을 번역하다.

-나는 영어가 서툰 동생을 위해 영문 책을 하나 선물했다.

-우리는 영국의 기업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작성했다.

-가: 미국에 여행 갔다가 너한테 주려고 카메라를 하나 샀어.

-나: 그런데 설명서가 모두 영문이라 통 알아볼 수가 없겠는 걸.

영어를 적는 데 쓰는 글자.

-영문 타자.

-영문을 쓰다.

-영문을 배우다.

-영문으로 작성하다.

-영문으로 표기하다.

-나는 서명을 할 때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다.

-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는 영문 한 자 한 자를 천천히 써 내려갔다.

-가: 이름의 성이 영문으로 어떻게 되시죠?

-나: 'KIM'입니다.

서두 명사

일이나 말이 시작되는 부분.

- 서두가 길다.
- 서두를 꺼내다.
- 서두를 놓치다.
- 서두를 늘어놓다.
- 서두를 장식하다.
- 김 사장의 연설은 서두가 길어 직원들을 집중시키지 못했다.
- 우리나라 팀의 올림픽 경기 우승이 아침 신문의 서두를 장식했다.
- 가: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서두가 길어. 그냥 바로 말해.
- 나: 나 돈 좀 빌려줘.

어떤 차례나 순서의 맨 앞.

- 서두가 되다.
- 서두를 정하다.
- 서두에 놓이다.
- 서두로 나서다.
- 서두로 두다.
- 올림픽 개최국은 사격 종목을 이번 대회 순서의 서두에 두었다.
- 환경 보호를 위해 각 기업들이 서두로 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앞장섰다.
- 가: 발표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할래?
- 나: 내가 서두로 나설게.

수록 명사

자료를 책이나 음반 등에 실음.

- 수록이 되다.
- 수록을 하다.
- 이 책에는 백 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다.
- 나는 그 가수의 음반에 수록이 된 노래를 다 외우고 있다.
- 많은 사진이나 그림을 수록을 한 잡지는 그만큼 값이 더 나간다.

수신자 명사

편지나 택배, 전화, 메시지 등을 받는 사람.

-발신자와 수신자.

-수신자 표기.

-수신자를 만나다.

-수신자를 찾다.

-수신자에게 전달하다.

-우리는 결혼식 청첩장 발송을 위해서 우선 수신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.

-가: 어머니! 얼마 전에 내가 보냈던 편지가 왜 나한테 다시 온 거지?

-나: 혹시 수신자와 발신자의 위치를 바꿔 적은 거 아니야?

어원 명사

단어의 근원적인 형태.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.

-단어의 어원.

-말의 어원.

-어원이 같다.

-어원을 밝히다.

-어원을 설명하다.

-어원을 연구하다.

-어원을 조사하다.

-그는 세계 언어의 어원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이다.

-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의 어원을 알면 배우고 습득하기 쉽다.

-가: 이 말의 어원이 뭔지 궁금해.

-나: 도서관에 가면 어원 사전이 있을 거야. 한번 찾아보자.

공용어 명사

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.

- 공용어를 바꾸다.
- 공용어를 지정하다.
- 공용어로 삼다.
-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다.
- 여러 민족이 모인 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공용어가 쓰이기도 한다.
- 할머니께서는 일제 강점기 때 공용어인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셨다.

국제적인 기구나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.

- 공용어로 발표하다.
- 공용어로 채택하다.
- 공용어에 포함되다.
- 파리에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다.
- 유엔에서 지정한 공용어는 현재 중국어, 영어, 아랍어, 프랑스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이다.

형용하다 동사

말이나 글, 동작 등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다.

- 형용할 방법.
- 형용하기 어렵다.
- 감정을 형용하다.
- 사물을 형용하다.
- 말로 형용하다.
- 가을이 되니 형용할 수 없이 쓸쓸한 분위기에 마음이 울적해진다.
- 무대 위의 발레리나는 아름다운 몸짓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형용하고 있었다.
- 아이가 두 팔을 날개처럼 퍼덕이는 것을 보니 새를 형용하는 듯하다.

사자성어 명사

한자 네 자로 이루어져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는,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.

- 사자성어 문제.
- 사자성어 퀴즈.
- 사자성어 학습.
- 사자성어의 유래.
- 사자성어를 배우다.
- 사자성어를 풀이하다.
- 영수는 오늘 한문 시간에 '대기만성'이라는 사자성어를 배웠다.
- 김 선생은 평소 말할 때에도 어려운 사자성어를 많이 쓴다.
- 가: '입신양명'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?
- 나: 응.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널리 이름을 알린다는 뜻이야.

경험담 명사

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본 일에 대한 이야기.

- 생생한 경험담.
- 솔직한 경험담.
- 경험담을 늘어놓다.
- 경험담을 듣다.
- 경험담을 들려주다.
- 경험담을 발표하다.
- 경험담을 이야기하다.
- 남자들은 모여 앉아 서로 군대에서 겪은 경험담을 늘어놓았다.
- 이 책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모아 엮은 것이다.
- 가: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.
- 나: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참고하는 건 어떨까?

좌담회 명사

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하는 모임.

- 좌담회를 가지다.
- 좌담회를 개최하다.
- 좌담회를 열다.
- 좌담회에 가다.
- 좌담회에 참석하다.
- 백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좌담회가 열렸다.
- 최근 주목받는 신인 작가들의 좌담회가 열리자 많은 청중이 참석했다.
- 가: 좌담회는 잘 마치셨나요?
- 나: 네, 많은 경제 학자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죠.

용법 명사

사용하는 방법.

- 말의 용법.
- 다양한 용법.
- 반대되는 용법.
- 부적절한 용법.
- 정확한 용법.
- 용법을 가르치다.
- 용법을 배우다.
- 용법을 틀리다.
- 나는 새로 배운 단어의 다양한 용법을 공부했다.
- 정확한 용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제품이 금방 고장 나 버렸다.
- 가: 냉장고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나: 자세한 용법은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.

법을 이용함.

- 부정한 용법.
- 용법을 잘하다.
- 용법을 하다.
- 용법에 능하다.
- 용법에 뛰어나다.
- 민준이는 용법에 뛰어난 유능한 변호사이다.
- 비리를 저지른 일부 기업이 부정한 용법으로 책임을 면했다.
- 가: 법은 약한 사람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해 줘야 돼.
- 나: 맞아. 그게 올바른 용법의 조건이지.

사무적2 관형사

직장에서 주로 서류를 처리하는 일에 관한.

-사무적 능력.

-사무적 실수.

-사무적 업무.

-사무적 요건.

-사무적 용도.

-유민이는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보다 사무적 업무를 더 좋아한다.

-매사에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는 사무적 능력이 높은 반면 창의력은 부족하다.

-가: 김 대리, 사무용품은 사무적 용도로만 사용해 주게.

-나: 네,부장님. 너무 급한 일이라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. 죄송합니다.

행동이나 태도가 진심이 없고 형식적인.

-사무적 분위기.

-사무적 상황.

-사무적 어조.

-사무적 어투.

-사무적 환경.

-나는 친구의 무미건조한 사무적 태도가 몹시 낯설었다.

-사무적 분위기에 모두의 표정과 자세까지도 딱딱하게 굳어졌다.

-가: 이걸 좀 스스로 할 수 없겠니?

-나: 그렇게 사무적 어조로 이야기하지 마. 남처럼 느껴지잖아.

설명문 명사

읽는 이에게 어떤 사실이나 지식, 정보 등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쓴 글.

-설명문을 보다.

-설명문을 쓰다.

-설명문을 읽다.

-설명문도 논설문과 마찬가지로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.

-설명문에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,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.

-남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는 것이 설명문의 목적이다.

유창성 명사

거침없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능력.

-읽기 유창성.

-유창성 장애.

-유창성이 떨어지다.

-유창성을 기르다.

-유창성을 향상하다.

-유창성을 훈련하다.

-연설가는 뛰어난 유창성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.

-지수는 외국인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창성이 높은 영어를 구사한다.

-가: 프랑스어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.

-나: 네,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원어민에게 배웠어요.

청자2 명사

이야기를 듣는 사람.

-청자의 관점.

-청자의 기분.

-청자의 반응.

-청자의 입장.

-청자가 개입하다.

-청자를 고려하다.

-청자를 높다.

-청자를 배려하다.

-청자를 살피다.

-청자에게 전달하다.

-우리는 대화를 하며 청자와 화자 사이를 수없이 오간다.

-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.

-가: 강의가 잘 안 들립니다.

-나: 아, 제가 청자를 배려하지 못했군요. 좀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.

무언 명사

말이 없음.

-무언의 눈짓.

-무언의 메시지.

-무언의 암시.

-무언의 압력.

-무언의 약속.

-나는 김 대리와의 무언의 눈짓을 주고받은 뒤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.

-박 과장은 무언의 압력이 느껴져 회식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.

-가: 승규가 너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니?

-나: 아니. 하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리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어.

비유적2 관형사

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어떤 것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는.

-비유적 맥락.

-비유적 설명.

-비유적 수법.

-비유적 의미.

-비유적 표현.

-시를 쓸 때는 비유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.

-작가는 작품에서 비유적 수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했다.

-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비유적 설명을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다.

-가: 개 욕심이 많아서 돼지 같아.

-나: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 보고 돼지라고 하면 안 되지.

동시통역 명사

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동시에 모국어나 다른 나라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.

- 동시통역 기능.
- 동시통역 시설.
- 동시통역 시스템.
- 동시통역 전문.
- 동시통역을 하다.
-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관계로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.
-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무역 상담에서 동시통역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다.
- 가: 대통령의 연설을 동시통역을 통해 여러 언어로 내보내고 있어.
- 나: 응. 전 세계로 방송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더라.

발신자 명사

편지나 소포, 메시지 등을 보내는 사람.

- 발신자 번호.
- 발신자 주소.
- 발신자 추적.
- 발신자 표시.
- 발신자 확인.
-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해 나에게 협박 전화를 건 범인을 체포했다.
- 내 휴대 전화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떠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다.
-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자의 이름을 보니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다.

무응답 명사

응답이 없음. 또는 응답을 하지 않음.

- 무응답 비율.
- 무응답으로 나타나다.
- 무응답으로 일관하다.
- 그 영화배우는 스캔들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.
- 본 설문 조사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무응답 비율이 칠 퍼센트로 나타났다.
- 가: 아직도 김 대리에게 연락이 없어?
- 나: 예. 전화를 안 받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무응답입니다.

시적1 명사

시의 느낌을 가진 것.

-시적인 가능성.

-시적인 감수성.

-시적인 깊이.

-시적인 대상.

-시적인 분위기.

-시적인 비유.

-시적인 사유.

-시적인 상상력.

-시적인 상황.

-시적인 자아.

-시적으로 표현하다.

-시적으로 형상화하다.

-하늘을 두 손에 담는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다.

-시인은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다와 하늘을 하나로 생각했다.

문단2 명사

문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.

-문단 활동.

-문단에 나서다.

-문단에 선보이다.

-문단에 알려지다.

-문단에 진출하다.

-남자는 이 년 전에 한 단편 소설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.

-새롭게 등단한 신인 작가가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.

-김 선생은 문단에 데뷔한 이후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.

-우리 문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작가 중에는 외국 작가들도 적지 않다.

-나는 문단에서 중견 소리를 듣는 한 선배 작가의 작품을 모두 찾아 읽었다.

표기법 명사

말을 문자나 부호로 적어서 나타내는 규칙.

-한글 표기법.

-외래어 표기법.

-올바른 표기법.

-표기법 규정.

-표기법을 지키다.

-표기법에 어긋나다.

-나는 해외에서 사이즈 표기법을 볼 줄 몰라 옷을 살 수 없었다.

-지수는 외래어 표기법을 몰라 영문 주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.

-가: 여권 영문명 표기법을 알고 싶어요.

-나: 성은 앞에 쓰고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.

시적2 관형사

시의 느낌을 가진.

-시적 공간.

-시적 대화.

-시적 묘사.

-시적 분위기.

-시적 표현.

-국어 선생님은 봄의 풍경을 시적 표현으로 바꾸었다.

-나는 외국인이 말하는 소리가 시적 노랫말로 들렸다.

-시인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탄과 감동이 시적 감흥으로 떠오른다고 말했다.

정확성 명사

바르고 확실한 성질. 또는 그런 정도.

-논리적 정확성.

-역사적 정확성.

-정확성 문제.

-정확성 여부.

-정확성의 기준.

-정확성의 정도.

-정확성이 높다.

-정확성이 떨어지다.

-정확성이 보장되다.

-정확성이 증가하다.

-정확성을 기하다.

-정확성을 높이다.

-정확성을 추구하다.

-정확성을 판별하다.

-김 교수는 승규에게 이 실험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.

-지수는 수학 문제 풀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계산했다.

-우리 연구 팀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.